

GROVERSE NEWS

2025.4.3(목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[주요 내용]

○ 탄핵·수사 관련

- 한덕수 권한대행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냉정한 수용 촉구 (Reuters/UPI)
- 경찰, 대통령탄핵심판선고앞두고“폭력사태방지위해모든역량총동원” (AFP)
- 일본,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주시...파면시한일관계후퇴우려(요미우리)

○ 국회·정치권동향

- 한국국회, 최상목경제부총리탄핵소추안본회의보고(Reuters)

○ 미국발관세

- 트럼프, 10% 보편관세및국별상호관세적용발표(Bloomberg/Reuters/WSJ/WP/FT)
- 한국“미국발관세에신속대응할것” (Reuters)
- 트럼프, 세계무역장벽겨냥한상호관세발표예정(WT)
- 다가오는 트럼프 관세...동맹 관계에는 타격 불가피 (NYT)
-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 아시아 국가의 잠재적 피해 (AP)
- 헤지펀드, 미관세발표앞두고서둘러아시아투자비중축소(Reuters)
- 트럼프 관세 부과 예상에 자동차 판매 급증 (NYT/WSJ)

○ 외교·안보

- 중국, 트럼프관세임박한가운데이웃국과의협력모색(FP)
- ‘역사의 전환점’, 트럼프로인해긴밀해진한국·일본·중국(독FR)
- 미합참의장후보, 북한언급하며한반도주한미군병력감축반대(NK News)
- 러시아“러시아·중국외무장관, 이란핵프로그램과한반도논의” (Reuters)

○ 북한

- 북한, 미·일군수협력비난(Reuters)
- 북한신형군함, 미사일수십발탑재가능(Reuters)
- 구글“북한IT 전사들, 유럽기업침투목표” (Bloomberg)

○ 한일관계

- 전후80년역사의교훈, 총리담화로(아사히사설)
- 日 ‘윤봉길추모관’, 옛상처다시들추다(SCMP)
- 웰른나치기록박물관앞평화의소녀상, 일본서분노촉발(독t-online)

○ 한국경제

- 이복현금감원장, 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와관련해사의표명 (Reuters)
- 3월소비자물가2.1% 상승...한은금리동결가능성커져 (Bloomberg/Reuters)
- 한은“물가2% 근방에서안정될것” (Reuters)

○ 사회

-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정치인 사망으로 한국의 ‘여론 재판 조명’ (SCMP)
- 한국, 인도네시아인산불영웅에게장기체류자격부여검토 (SCMP)
- 한국, 정박한선박서코카인1t 발견(Reuters)

탄핵·수사 관련

<Reuters 4.2 서울발> 한덕수 권한대행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냉정한 수용 촉구 (Ju-min Park & Jack Kim)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**옳**, 오는 **일요일**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
- 이어 “정부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”이라며 “결과가 어떠하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”고 강조

* <UPI> 한덕수 권한대행, 윤 대통령 탄핵 판결 앞두고 차분함과 치안 강화 주문

<AFP 4.2 서울발> 한국 경찰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“폭력 사태 방지 위해 ‘모든 역량 총동원’” (Hieun Shin)

- 한국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힘
-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시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거리를 통제
- 경찰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격렬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병력 1만 4천여 명을 배치하고, 인근 학교와 상점, 주요 관광지를 폐쇄할 예정

<요미우리 4.3 도쿄발> 일본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시...파면 시 한일 관계 후퇴 우려

-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**일요일**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 중
-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,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며,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좌파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됨
- 파면된 대통령의 성과는 비판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, 일본 자민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선한 한일 관계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

- 탄핵 기각 시에도 한계(소수 여당)는 여전해, 야당 공세로 대일 외교 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.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시바 총리의 한국 외교는 쉽지 않을 전망

국회·정치권 동향

<Reuters 4.2 서울발> 한국 국회,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(Ju-min Park)

- 한국 국회는 2일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
- 우원식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보고 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것이라고 밝힘

미국발 관세

<Bloomberg 4.3> 트럼프, 모든 국가에 10% 보편관세 부과 일부 국가에 더 높은 관세 적용 (Jennifer A Dlouhy, Catherine Lucey & Josh Wingrove)

-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. 이는 그가 오랫동안 불공평하다고 비판해 온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
-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모든 대미 수출국에 최소 10%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, 무역 불균형이 큰 수십 개 국가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언급
- 중국에는 34%, 유럽연합에는 20%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, 베트남은 46%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
- 그 외 일본(24%), 한국(25%), 인도(26%), 캄보디아(49%), 대만(32%)도 고율의 관세 적용 대상 국가 중 일부

<Reuters 4.3 워싱턴발> 트럼프 “모든 수입품에 10% 관세 부과, 일부 품목은 더 높을 것” (Andrea Shalal & David Lawder)

-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% 관세를 부과하고, 일부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
- 이번 전방위적 관세 부과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는 조치로,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무역 자유화 흐름을 되돌리는 것
- 미 관세는 자전거부터 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릴 전망. 주요 교역국들은 각자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

-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, “이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 선언”이라고 언급

* <WSJ> 트럼프, 모든 수입품에 10% 관세 부과...‘악의적’ 국가엔 더 높은 세율 적용

<WP> 트럼프, 다수 국가에 ‘상호주의 관세’ 부과, 10% 일괄적용

<FT> 미국, 주요 교역국에 ‘상호주의’ 명분 대규모 관세 부과

<Reuters 4.2 서울발> 한국 미국발 관세에 신속 대응할 것 ” (Jihoon Lee)

-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이 발표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
- 최 부총리는 또한 통상·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, 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

<WT 4.2> 트럼프, 세계 무역 장벽 겨냥한 상호관세 발표 예정

- 트럼프 대통령은 2일(현지시간) 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‘미국 해방의 날’ 계획을 발표할 예정
- 이 계획은 캐나다, 중국, 유럽연합(EU), 인도, 아일랜드, 일본, 멕시코, 한국, 스위스, 대만, 베트남 등 대미 무역 불균형이 있는 국가가 대상
-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팀과 함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입 상품에 20%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

<NYT 4.2> 다가오는 트럼프 관세...동맹 관계에는 타격 불가피 (David E. Sanger)

- 미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결별 및 독자 노선을 계획하는 가운데 위협, 소외, 비난이 뒤섞인 소용돌이 속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‘미국 해방의 날’ 관세를 발표할 예정
- 관세 부과는 대서양, 태평양, 캐나다 동맹이라는 세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음. 이 지역은 방위 관계, 무역 상호 의존성, 80년 이상의 유대감이 서로 얽힌 곳
- 나토(NATO) 회원국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이 다른 나토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. 이는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기 때문
- 이는 불과 2개월 반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신뢰의 붕괴. 몇 년 내 세계적 위기가 온다면 미국은 최대 전력 증강자인 동맹 없이 위기에 처할 할 수 있음

<AP 4.2 방콕발>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 아시아 국가의 잠재적 피해 (Elaine Kurtenbach)

- 트럼프 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확대한 무역 전쟁은 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있음
- 한국은 지난해 66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, 자동차, 전자제품,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

-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,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분석
- 네덜란드 라보뱅크 연구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LNG 수입국이 대미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산 가스를 더 많이 구매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

<Reuters 4.2 홍콩발> 헤지펀드, 미 관세 발표 앞두고 서둘러 아시아 투자 비중 축소 (Summer Zhen)

- 모건스탠리 자료에 따르면, 헤지펀드들이 2일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주 아시아 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
- 모건스탠리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, 한국, 중국, 대만 시장에서 매도세가 두드러졌으며, 일본 시장에서는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추가 설정했다고 언급
- 이외 지역별로는,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5년 만에 해제되기 직전에 한국 주식이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음

<NYT 4.2> 트럼프 관세 부과 예상에 자동차 판매 급증 (Jack Ewing)

- 미 자동차 업계는 지난 3월 자동차가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.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로 가격이 오르기 전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
- 현대차 북미법인은 지난달 31일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13% 증가했다고 보고. 현대 하이브리드차의 1분기 판매량이 68% 급증했고 순수 전기차 판매는 3% 증가

* <WSJ> 트럼프 관세 위협에 자동차 구매에 나선 소비자들

외교 · 안보

<FP 4.2> 중국, 트럼프 관세 압박한 가운데 이웃국과의 협력 모색 (James Palmer 포린폴리시 부편집장)

- 3 일 또 한 차례의 미국 관세 부과가 압박한 가운데, 중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,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노력 중
- 지난 28일 시진핑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수호자라고 강조했고, 30일에는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들이 회동해 자유무역을 함께 촉진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
- 이후 한국과 일본이 “과장된 측면이 있다”고 해명하기는 했으나, 중국은 세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선제적으로 보도
-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운다면,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은 매력적인 동맹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

- 그러나 중국은 대만과 같은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어, 일본과 한국과의 협력 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
<독 Frankfurter Rundschau 4.2> ‘역사의 전환점’,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의 적대국과 우호국들 사이 긴밀해져 (Sven Hauberg)

-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도쿄에서 일본 외무상,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악수했고, 지난 주말에는 한일중 경제장관이 서울에서 회동하는 흔치 않은 모습을 보임
- 이는 미국 때문으로,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통해 한일중 3국 모두를 공공연히 겨냥
-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로 긴밀해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
- 중국은 동중국해 무인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고, 일본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을 우려
-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“세계 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닻”이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려 하고 있음
-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

<NK News 4.2> 미국 합참의장 후보, 북한 언급하며 한반도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반대 (Joon Ha Park)

- 덴 케인 미국 미 합참의장 후보자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 병력 감축에 반대 의사를 표명
- 케인 후보자는 주한·주일미군을 감축하는 경우 잠재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초래한다고 답변
- 또한, 케인 후보자는 발전하는 러북 관계를 거론하면서 러북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상당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

<Reuters 4.2 서울발> 러시아 “러시아·중국 외무장관, 이란 핵 프로그램과 한반도 논의” (Lidia Kelly)

- 러시아 외무부는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반도 상황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밝힘
- 왕 부장은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
- 이는 최근 몇 년간 러중이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고위급 회담 중 가장 최근 회담

북한

<Reuters 4.2 서울발> 북한, 미·일 군수협력 비난 (Jack Kim)

-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공대공 미사일 공동 생산 합의가 역내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북한 관영 <조선중앙통신>이 2일 보도
-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1일 담화에서 양국 합의가 명백한 침략 의도를 띠고 있다며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
- 그는 이어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는 것이 북한의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

<Reuters 4.2 싱가포르발> 북한 신형 군함, 수직발사관 (VLS) 탑재로 미사일 운용 능력 확대 (Gerry Doyle)

- 위성사진 분석 결과, 북한의 신형 군함은 50개 이상의 수직발사관(VLS)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되어, 기존보다 향상된 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보할 전망
- 이 4,000톤급 군함은 청진과 남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, 대함·순항미사일,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(SLBM) 등 다양한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
- 전문가들은 북한이 VLS 기술을 도입해 해군 전력을 증강하는 동시에, 저비용 무기 체계를 통해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으로 분석
- 다만, 이 군함은 한국과 미국 해군의 최신 함정에 비해 기술적 격차가 크며, 작전 범위도 북한 연안 근해에 한정될 것으로 평가

<Bloomberg 4.2> 구글 “북한 IT 전사들, 유럽 기업 침투 목표 ” (Olivia Solon)

-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른 국가 프리랜서로 위장해 유럽 기업에 침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의 조사에서 드러남
- 구글 연구원들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지난 6개월간 자신을 IT 전사라고 지칭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이 미국 외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
- 북한 IT 노동자들은 그간 미국 기업에 침투하는 데 주력. 미 일자리가 여전히 주요 목표이지만, 미 법무부의 제재와 기소 등으로 활동 무대를 유럽 등지로 이동

한일 관계

<아사히 4.3 사설> 전후 80년 역사의 교훈, 총리 담화로

-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담화로 전후 사죄 외교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새로운 담화를 내놓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뿌리 깊음

- 정권 기반이 약한 총리는 당내 균열을 피하고 싶겠지만, 지나치게 내향적이며 큰 국면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음
- 과거의 과오를 결코 잊지 않고 미래에 살리겠다는 다짐을 계속해 갱신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
- 아베 담화의 족쇄에 얽매어 80년 담화를 보류한다면,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일본이 반성을 잊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음

<SCMP 4.2> 日 ‘윤봉길 추모관’, 옛 상처 다시 들추다 (Julian Ryall)

-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 일본 가나자와에 설립된 추모관의 개관이 우익 단체의 격렬한 항의 속에 취소됨. 이는 일본의 식민지 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부각
- < 산케이신문>은 약 70대의 우익 단체 차량이 3시간 동안 추모관 주변을 돌며 욕일기를 휘두르고 군악을 틀었다고 보도
- 추모관을 설립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이전에도 공격 대상이 됐으며 지난달 2일 우익 단체 회원이 가나자와에 있는 민단 사무실을 차량으로 들이받았음

<독 t-online 4.2> 퀵 나치 기록박물관 앞 평화의 소녀상, 일본서 분노 촉발

- 평화의 소녀상 ‘동마이(Đông Mai)’가 3월 8일 제막식을 가진 후 나치 기록박물관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중
-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당초 헨리에테 레커(무소속) 퀵 시장은 처음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동상의 설치 허가를 거부
- < 슈피겔>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퀵 지역 정치권을 압박했고, 인넨슈타 구의회 의 한 의원은 일본 의원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
- 이 일본 의원은 동상 설치를 막으려 했으며, 간접적으로 경제적 영향이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짐
- 시는 소녀상 설치를 막으려 했다는 비판을 일축하면서, 설치 대체 장소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해명

한국 경제

<Reuters 4.2 서울발> 이복현 금감원장,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 표명 (Jack Kim & Jihoon Lee)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2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힘

-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
-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'코리아 디스카운트'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피력

<Bloomberg 4.2> 한국 3월 소비자물가 2.1% 상승...한은 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(Soo-Hyang Choi)

- 한국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.1% 상승해 2월(2.0%)보다 상승 폭이 확대 되었으며, 이는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
- 근원물가는 전년 대비 1.9% 상승하여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(2%)에 근접했으며, 특히 수입 쇠고기 가격이 5.6% 급등하는 등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
- 한국은행은 작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으나, 이번 물가 지표로 인해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됨

* <Reuters> 한국 3월 소비자물가 2.1% 상승...예상치 소폭 상회

<Reuters 4.2 서울발> 한은 물가 2% 근방에서 안정될 것" (Jihoon Lee)

- 한국은행은 2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.1%로 상승폭이 확대됐지만, 앞으로 목표치인 2%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

사회

<SCMP 4.2>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정치인 사망으로 한국의 '여론 재판' 조명 (Park Chan-kyong)

- 한국 사회가 성폭행 의혹을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충격에 빠짐
- 이번 사건은 법적 절차 이전에 언론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한국의 '여론 재판' 문화를 재차 부각.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, 2023년 배우 이선균 사례가 대표적
- 전문가들은 한국 언론이 일방적인 의혹을 검증 없이 보도해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점과 무죄추정 원칙을 경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

<SCMP 4.2> 한국, 인도네시아인 산불 영웅에게 장기체류 자격 부여 검토

- 한국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부터 노인 주민들을 구한 인도네시아 선원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

-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거주(F-2)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.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

<Reuters 4.2 서울발> 한국, 정박한 선박서 코카인 1t 발견 (Joyce Lee)

- 세관 당국과 해양경찰이 2일 국내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약 1t의 코카인을 발견.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된 사례
- 해당 선박은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, 파나마, 중국을 거쳐 한국 항구에 도착
- 한국 당국은 미국 연방수사국(FBI)과 국토안보수사국(HSI)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후 선박을 수색했다고 발표